반구대암각화 고래표현에 대한 정신사적 접근

An Approach of Spiritual History to the Whale Expression of Bangudae Petroglyphs

이하우(한국선사미술연구소장)

Hawoo, Rhee(Institute Art prehistoricof Korea)

<요약>

반구대암각화를 가치 있게 하는 것은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중에서 57점으로 조사된 고래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 명료하게 나타나는 것을 찾아본다는 것도 쉽지 않다. 이 글은 그런 고래표현의 정신사적 현상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반구대암각화의 비의(秘義)적 요소, 그 내용 하나를 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반구대암각화 정신성이 잘 나타난 부분은 고래사냥과 관련해서 나온 고래 표현물의 무리가 있다. 그것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그들 포경집단이 이곳에서 행하여 왔던 의례의 내용으로서 말하자면 수렵에서 야기된 살해의 죄업을 씻고, 그들에게 희생된 고래 영혼의 위무와 귀천, 재생을 목적하였던, 이른바 선사인들이 바라본 우주적 순환 질서를 여기 이곳에서 구현하고자 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정신성이 깃든 반구대암각화는 복합적 의례 공간으로서 의미가 큰 곳이었다.

<Abstract>

There are many things that make Bangudae petroglyphs valuable. However, except for whales found to be 57 points, it is virtually difficult to find what looks clear.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spiritual phenomena of whale expression. Through it, we will be able to learn one of the ritual elements of Bangudae petroglyphs and its contents.

The well-represented part of the Bangudae petroglyphs is a group of whales related to whale hunting. Through its analysis, we can understand that their whaling group wanted to wash away the Karma of murder caused by hunting and embody the so-called cosmic circular order seen by prehistoric people here for the purpose of consolation, return, and regeneration of the whale souls sacrificed to them. The Bangudae petroglyphs with such spirit are a place of great significance as a complex ritual space.

1. 머리말

국보 285호 울산 반구대암각화는 한국 미술사의 첫머리에서 논의되는 높은 가치의 유적이다. 대곡천 강변의 아름다운 수직 암벽에 있는 반구대암각화는 사슴, 멧돼지와 같은 우제목으로부터 호랑이, 담비 등의 식육목이 있고, 고래를 비롯한 해양 동물에 더하여 배, 작살, 부구와 같은 도구와 인물이 있다.

353점에 이르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표현물은 수적인 부분을 예외로 한다면, 그 알찬 내용과 조형성 높은 표현물은 이 세상 그 어떤 암각화 유적과도 비교우위의 유적으로서, 비근한 예를 찾아보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런 탁월한 가치를 높이 사, 지금 우리는 대곡천암각화군의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 반구대암각화를 의미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많은 것을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그 중 57점으로 조사된 고래와 같은 것을 빼고 나면 달리 말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을 것이다. 이 글은 그러한 고래가 갖는 상징성 그 전반적 현상에서도 특히 정신사적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반구대암각화가 어떤 제의성을 갖고 발전해 왔으며, 그리고 그것이 그들 반구대암각화 주인공들 정신성으로는 어떻게 발현되고 있었는지를 알고자 한다.

2. 반구대암각화에서 고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반구대암각화 표현물에서 주목되는 것은 단연 고래가 있을 것이다. 그동안 거듭 강조되고 있던 고래는 사실상 사실성(事實性)에서 나온 도감 적 표현력의 결과라든가 완성도 높은 조형성을 보인다고 하는 등 다소 추상적인 수사로 평가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면에서 모호하게 받아들여 왔던 표현물의 의미를 이제 실체적 면모를 들춰보는 것으로 고래표현의 성격을 구체화해야 할 시점이다.

353점에 이르는 반구대암각화 표현물에서 무리를 지어서 나타나는 고래의 단계적 위치는 선행연구로서 확인할 수 있다(이하우 2004, 2007:39-76, 2011:162-171, 2019:182-209). 그리고 그것은 일차적으로 표현속성, 즉 형태를 묘사하는 차별적 표현방식으로 분류함으로서 얻어질 수 있다. 표현속성이라는 말은 개인이나 지역, 시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일정한 양식이나 모양 또는 형식과 같은 말로서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용어는 암각화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합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본고에서는 이를 표현속성 또는 표현상 속성이라는 말로 이르고자 하였다. 그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표현속성에 따라 표현물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그것을 중첩표현물의 겹침 순서에 따라 배열하는 것으로 전체 표현물의 제작 순서는 물론, 우리의 주제로서 고래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 그 순서에 따르는 단계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 반구대암각화 단계에서 찾는 고래의 위치

반구대암각화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 있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표현물 하나하나가 보여주는 조형적 언어를 넘어, 최초 표현물로부터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단계별 표현물의 구성 의미와 그 흐름의 맥락을 읽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표현물의 유형분류 및 중첩과정상의 분석으로 얻어지는 제작 단계는 모두 5개의 과정을 거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전 단계별 상징의미를 요약하는 것으로 시간적 흐름에 따라 변해온 그 성격의 대략적 면모를 정리하고, 동시에 고래가 중심이 된 제작 층은 어떤 단계에 해당하는지를 알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반구대암각화 전반적 성격의 흐름, 그 전개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단계별 분류에 의하여, 반구대에서 처음 등장한 표현물은 4척의 고래잡이배와 고래가 중심이 되는 단계이다. 그리고 그 안에는 특별한 표현물로서 2척의 고래잡이배가 큰 몸집의 고래를 잡는 공동포경 장면이 있다. 이러한 표현물 상황으로 봤을 때, 반구대암각화라고 하는 유적의 조성은 처음 고래사냥과 관련하여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다음으로 발견되는 표현물은 대다수 동물묘사가 의도적으로 몸체를 변형한 것 같은 작달막한 체형의 사슴, 호랑이 등으로 구성되는 소형동물이 나온다. 그런 두 번째 단계는 동물의 고유한 특징을 담아내는데 적합한 묘사력으로 봤을 때, 이 단계는 수렵 미술의 일단으로서 동물묘사에서 유사율에 바탕 둔 동종 주술의 면모가 발견되고 있다. 그런 단계에 이어 나타나는 세 번째 단계는 사슴과 같은 초식동물과 함께, 멧돼지, 개과 동물, 담비와 같은 식육목의 동물로 구성되고 있다. 이 세 번째 단계의 특징이라면 그것은 짝지은 동물표현과 같은 것이 있다. 암수가 서로 짝지어 있는 동물은 아무래도 대자연 속에서 동물계 안정적 번식을 소망하는 데서 나온 풍요기원의 깊은 인식이 바탕이 된, 일종의 성적 표상이 반영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다음 등장하는 단계가 바로 여기 고래가 무리를 지어서 등장하는 단계이다. 반구대암각화의 독자성, 그 탁월한 가치를 충실하게 보여주는 네 번째 단계는 고래와 함께 거북이와 가마우지가 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장을 바꿔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나타난다.

반구대에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표현물은 선 새김 호랑이가 있고 표범이 있다. 그리고 그 몸체에 선각 문양이 있는 호랑이, 멧돼지, 사슴과 표범이 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두부를 아래를 향한 선 새김 고래가 포함되고 있는 마지막 단계는 존재감이 명료한 동물표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 단계는 동물묘사에서 생태적 현상과는 상관없는 문양의 표현물이 나타난다. 그런 동물은 모두 배가 불룩하게 나와 있어서, 선각 문양의 동물은 일단 새끼를 밴 어미를 묘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단계는 수렵문화에서 금기와 관련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동물에 대한 인식이 특성화 한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고래표현의 구성 의미와 성격

앞서 지적한 것처럼, 반구대암각화에서 고래가 중심이 되는 층은 네 번째 단계이다. 그 어떤 단계보다도 유적의 독자성을 잘 보여주는 여기 네 번째 단계 안에는 20여 점이 넘는 고래와 함께 3점의 거북이가 있고 4점의 가마우지가 서로 어울려 하나의 층을 구성하고 있다. 무리를 지은 면 새김 고래가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단계는, 직설적으로 상징성을 투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구대암각화를 대표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반구대암각화를 이 세상 이름난 암각화 유적에 비교할 때, 수적인 면에서는 결코 견주어 볼 만 한 수준이 아니다. 그러나 유적의 가치가 양적 측면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듯이, 반구대암각화는 고래사냥의 장면이 있고, 고래가 중심이 되어 나타난 의례성으로 하여 그만큼 탁월

그림 1. 반구대암각화 네 번째 단계

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고래는 중심 암 면의 좌측면을 가득 채우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구성이다. 그런 전반적 면모를 한눈에 보여주는 부감법(俯瞰法)의 구도는 유영하고 있는 고래의 실체감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화면구성은 그 이전이나 이후 어떤 단계보다도 조형성에서 수준 높은 미감(美感)에 이르고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도 그 일차적인 것은 고래가 만들고 있는 구성요소에 있다. 우선 한눈에 확인되는 것은 삼각구도와 같은 것이다. 그런 화면구성을 형성하고 있는 고래의 무리는 그대로 하늘을 향하고 있는 방향성을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부감법의 시점과도 같아서, 전체를 조망하듯 하늘을 향하고 있는 고래를 한눈에 바라보게 한다. 말하자면 삼각구도의 고래 무리 그 전반의 양상을 마치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런 관점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여기 반구대라고 하는 신성공간에서 벌어졌던 의례에서 제의의 주관자를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관객과도 같이 여기서 제의의 전반을 함께 하는 참배자의 관점을 고려하였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러한 암각화 표현을 통해 그들은 그들에 의해 살해된 고래의 영혼을 달래는 전 과정을 확인하면서 그들 스스로 살해의 죄업을 씻었을 것이다. 또한 동시에 귀천하는 고래의 영혼을 바라보는 것으로 안도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 모든 구성은 이미 구상단계에서부터 특정 의도를 갖고 만들었을 것이라는 뜻과도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무리 고래는 이미 사냥꾼에게 사로잡혀 죽임을 당한 고래의 영혼을 묘사한 것이 분명하다. 그것은 삼각구도에 부감법의 관점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서로 다른 종의 고래가 함께 하나의 무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비현실적 화면구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또는 그런 고래 중에서 작살을 맞은 고래도 있고, 무리 고래의 선두에서 이들을 이끌고있는 3점의 거북이의 존재가 만들고 있는 그런 전반적 분위기가 고래의 정체성에서부터, 성격의 일단까지도 암시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내용을 잘 함축하고 있는 표현물이 한 점 있다. 그것은 중심 암 면 한가운데에 있는 그림 2와 같이 고래 한 마리와 가마우지 두 마리가 구성된 것으로, 여기서 가마

그림 2. 고래와 가마우지

우지는 고래의 영혼을 모시고 영계로 이끌고 있는 도상이 이렇게 함축적 의미를 갖고 나타난 것이었다. 가마우지 한 마리는 입에 물고기를 물렸다. 그것은 아마도 이 새가 하늘을 나르면서 동시에 물속도 드나들 수 있는 생태기능, 즉 가마우지의 초월적 능력을 암시하기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반구대암각화에서 예술가는 참으로 많은 것을 고려하였던 모양이다.

널리 알려진 사실 하나가는 거북이나 가마우지와 같은 생물은 뭍에서 물, 그리고 하늘과도 서로 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 한계를 넘나드는 능력으로 하여 그것은 이미 초월적 존재가 되었으며, 그런 동물에게 인도되고 있는 고래는 이미 죽임을 당한 고래의 영혼이 틀림없다. 그런 의미에서 반구대암각화 상당수의 고래는 애니미즘적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나온 고래의 영혼 위무를 목적하여 나온 것으로 보인다.

고래와는 같은 단계의 표현물 중에는 좌측 하단부에서 사지를 활짝 펴고 있는 사람이 한 점 나온다. 그는 손가락 발가락이 크게 과장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정면성을 하고 여성의 성징을 갖고 있다. 그동안의 연구에 의한다면 이러한 자세의 인물표현은 샤먼과 같은 종교직능자로서(이하우 2015; 임세권 2002), 그녀는 지금 고래의 영혼을 달래어 영계로 보내고자 하는 목적의 굿을 진행하고 있다. 고래의 영혼 여행을 돕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자신까지도 마치 허공에 떠 있는 것과 같이 부유형(浮遊形)의 자세로서 탈 혼 망아(脫魂忘我) 상태의 영혼 여행자의 모습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반구대암각화라고 하는 곳은 모든 사자(死者)의 영혼이 머무는 곳으로, 이제 그 영혼을 달래어 귀천에 이르게 하는, 동시에 새로운 생명과 육신을 얻어서 다시 되돌아오기를 염원하는 그런 목적성 의례와 관련된 곳이었다.

환경적 측면에서 유적은 조성 당시로부터 엄정한 과정 끝에 선택된 곳이었다. 암각화 유적은 여러 가지 고려되어야 할 것이 많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애를 써 만든 암각화가 잘 보호되어야 함은 물론, 의례에서도 좋은 자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는 이곳은 위쪽으로는 집의 처마처럼 바위가 나와 있어서 비바람에 보호되고, 암각화가 자리잡은 건너 각단을 중심으로 하는 대곡천 일대도 이곳에서 나는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지는 그런 곳이다. 이른바 공명현상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곳은 무엇보다도 음향이 극대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의 공간으로서는 특별한 곳이 된다. 의례의 주도자는 물론, 참여자나 관객 모두는 제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향을 서로 교감하는 것 만으로도 이 긴장으로 가득한 극적인 공간에서 신성의 시간을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고래가 중심이 되고 있는 단계의 주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인간에게 사로잡혀 죽임을 당한 고래의 영혼 위무와 귀천, 그리고 그 영혼이 정화되어 새로운 육신을 얻어서 되돌아오기를 바라는 깊은 뜻이 반영된 층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뜻에서 이 단계는 고래사냥이라는 특정 형태의 의례성이 잘 갈무리된 정신사적 공간으로서 높은 가치를 갖는다.

3. 극적 의례공간으로서 반구대암각화

이상과 같이 유적 시작의 처음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내용과, 그리고 고래가 중심이 된 네 번째 단계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그 전반적 변천 과정의 흐름은 그림 3과 같이 모두 5개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 바와 같다.

그림 3은 첫 단계 고래사냥의 장면에서부터 수렵미술의 형태라든지 동물의 풍요기원의 정신성과 함께 자연계 관리라는 차원에서 나온 금기의 의식까지도 그 모든 유적 전반의 점진적으로 달라져 간 모습을 잘 담아내고 있다고 하겠는데, 그것은 오로지 동해를 끼고 있는 울산만 일대라고 하는 해륙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진 생존문화가 바탕이 된 것이었다고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특히 고래의 중심 단계는 일차적으로 어로 활동에서 야기된 특정의 의례 현상을 반영하는 문화단계로서, 그것은 고래사냥과 같은 해양문화에서 비롯된 살해에 대한 사냥꾼 그룹의 죄업을 씻어서 속죄하고자 하는 데서 나온 목적성 제의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중점주제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사냥에서 목숨을 잃은 고래의 영혼을 달래고, 그 영혼을 저 멀리 구천으로 되돌리기 위하여, 그리고 그 영혼이 새로운 육신을 얻어 우리에게 되돌아오기를 기원하는 의례의 형태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곳 대곡천 일대는 일종의 삶의 흐름을 보여주는 윤회와도 같은 우주적 순환 주기가 이루어지는 곳이었다. 말하자면 대곡천을 흐르는 물과 같이, 이곳은 낮과 밤이 교차하며 삶과 죽음 그리고 회생이라고 하는 거대한 인생유전과 같은 것이 교차해 가는 하나의 우주적 중심축으로서 복합적 제의 공간리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곳이었다.

그런 뜻에서 반구대암각화에서 가장 적극적 의례성을 보여주는 중심적 표현 단계는 반구대 네 번째 바로 이 단계였다고 할 것이다.

3. 맺음말

한반도 선사 미술의 조종으로서 높은 가치를 갖는 반구대암각화는 353점의 표현물로 구성되는 단출한 유적이다. 인물에서부터 사슴과 같은 우제목이라든가, 호랑이 같은 식육목 동물도 있다. 그리고 그중에는 무엇보다도 고래와 같은 거대 해양 동물이 중요한 표현주제로 등장하고 있어서 반구대암각화는 인근의 다른 유적과도 크게 차별적이다.

그래서 반구대암각화를 대표하는 표현물이라면 57점으로 확인된 고래를 두고서 달리 이르고자 할 것도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 고래표현은 그대로 옛 선인의 정신사적 현상을 가감 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보이는데, 여기서 고래표현과 관련한 반구대암각화만의 특징적 현상을 정리하고자 한다.

사실상 반구대암각화는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장구한 시간적 폭을 갖고 완성에 이른 반구대암각화의 총합적 성격을 알기 위해서는 성립으로부터 마지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글쓴이는 2000년 유적에 대한 정밀조사에서부터 그 분석 가능성을 찾아내면서 표현물 중첩상태, 그리고 유형분류를 통하여 단계별 구분을 시도한 바 있다. 이 글은 그러한 분석 결과 중, 고래를 중심으로 하는 단계로서 네 번째 단계의 성격, 특히 거기서 발견되는 정신적 현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층별 순서에 따라 각각 다른 상징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반구대암각화 네 번째 단계의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서로 다른 표현물로 구성되는 유적은 처음 고래사냥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 어로 문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그다음은 육지에서 수렵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세 번째 단계도 마찬가지이다. 이윽고 우리의 오랜 관심사로서 고래는 고래사냥과 관련한 제의성이 중심이 되고 있고, 이윽고 반구대암각화 마지막 단계로서 다섯 번째 단계는 그 표현의 중심으로 육지 동물과 관련하는 것으로 유적은 마감되고 있다.

둘째,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반구대암각화의 정신적 체계가 가장 잘 드러난 곳으로 고래의 중심표현단계는 일차적으로 식량원의 안정적이고 영속적인 공급을 희구한다는 생존환경의 적극성을 띤 형태로써, 그것은 고래표현의 전반에서 구현되고 있는바와 같다. 하지만 언제나 정신적 현상으로 이른다면 그것은 고래사냥과 관련, 그들 포경집단이 지은 수렵에서 나온 살해의 속죄와 함께, 희생된 영혼의 위무에서부터 귀천, 재생과 같은 순환 주기를 여기 반구대에서는 고래를 통하여 그려내고 있다. 그것이 일대를 흐르는 대곡천의 흐름과도 같이 교차하고 있는 일종의 우주적 순환 주기, 그런 정신성이 깃든 반구대암각화는 한층 복합적인 의례의 공간이라는 의미를 고래를 통하여 잘 드러내고 있는 곳이다.

그런 관점에서 대곡천이라는 환경적 요인은 삶과 죽음, 그리고 회생에 이르는 윤회와도 같은 흐름을 이곳, 반구대에서 보여주고 있다.

참고문헌

이하우, 2007, 반구대암각화의 제작 층에 대한 연구, 한국상고사학보 58: 39-76.

이하우, 2011, 한국 암각화의 祭儀性, 학연출판사, 서울.

이하우, 2015, 암각화에서 샤먼표현의 형태적 속성, 한국암각화연구19: 77-97.

이하우, 2019, 반구대암각화의 내용과 제작층별 의미, 대곡천암각화군 종합조사연구 보고서: 182-209,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임세권, 2002, 미국 암각화에 나타나는 수족과장형 인물상, 한국암각화연구3: 1-15.

전호태·이하우·박초아, 2018, 국보 285호 울산 반구대암각화, 울산대학교 반구대암각화유적보존연구소, UUP, 울산.

Jeon Hotae·Rhee Hawoo·Park Younghee, 2019, The BANGUDAE PETROGLYPHS in Ulsan. Hollym, Carlsbad, CA and Seoul.

【 저자 소개 】

이하우 (Ha-woo Rhee)

1980년 2월 영남대학교 회화학과 졸

2009년 2월 경주대학교 문화재학과(암각화학, 박사)

2006년 3월 ~ 현재 한국선사미술연구소장

2014년 12월 ~ 2020년 12월 울산대학교 반구대연구소 교수

2021년 2월 ~ 한국암각화학회 회장

※주관심분야 : 세계의 암각화, 선사 미술